

# John Steinbeck의 社會意識

—The Grapes of Wrath를 中心으로—

金 利 哲\*

Steinbeck의 첫번째 大作인 *The Grapes of Wrath*가 1939年 4월에 出刊되자, 이 作品은 곧 論爭의 소용도리를 일으켰다. 그것은 文學作品으로서의 美的 價値를 따지는데 爭點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政治的인 面에서의 싸움의 불씨가 되었다.

左翼系列의 人士들은 이 作品을 人類 良心의 소리라고 까지 치켜 올렸고, 一方 그따위 主張은 兪托黨도 아닌 것이라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論爭은 더욱더 加熱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하나의 文學作品이 政治性을 띤 論爭의 씨앗이 된 것은 30年代라는 美國의 經濟史的 背景이 뒤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Hoover 大統領이 就任한 1929年, New York의 株式市場은 大暴落을 빚기 시작했다. 이 經濟恐慌이 비롯되기 直前의 美國의 國富는 3,610億弗로 計算되었고, 이 額數는 실로 1900年의 4배에 가까운 數字 이었던 것이다. 約 30年 동안에 國富를 400%까지 끌어 올렸던 美國에도 일단 恐慌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1932년에 이르러서는 하루에 40個所의 糶로 銀行은 破産했고, 國民所得은 1929年의 半밖에 안되는 400億弗로 떨어지고, 1,400萬이 넘는 失業 勞動者가 길거리를 메우게 되었다. 이 해 當選된 Roosevelt 大統領이 New Deal 政策을 들고 나와 私의 利潤과 自由企業 制度를 確立시켜 銀行의 全面的 破産은 겨우 막을 수 있었고, 그의 政策의 3大 基本要素이었던 3R(Relief, Recovery, Reform) 政策을 밀고 나가 어느 程度의 效果를 거두고 있기는 했다.<sup>①</sup> 즉, 1933~34년에 걸쳐서 農業信用貸付法과 緊急農場抵當法을 만들어 低利金을 貸付하여 低當에 들어간 土地를 農民들로 하여금 되찾게 했고, Montana, South Dakota 州를 비롯한 南部 10個 州에 있는 不毛地를 低當잡아 줌으로써 1萬7千餘 農家에 再起할 수 있는 資金을 뿌리는데 努力했고, 또한 過剩生産을 抑制하기 위하여 綿花, 煙草 生産者에게 自發的 生産抑制를 施行시키고, 한편 中間業者의 利益金을 生産者에게 分配하는 農業調整

\* 英語英文學科 副教授

註 ① F.L. Allen: Since Yesterday, Chapt. 9.

法도 또한 1933년에 立法 實施되어 역시 어느 程度의 效果를 거두기는 하였다.<sup>②</sup>

그러나 이런 여러가지의 農業救濟策도 그 惠澤을 받은 것은 주로 大地主들으로써 *The Grapes of Wrath* 에 登場하는 小作人에게는 그런 法律이 있는지조차 모를 程度였던 것이다. 오히려 生産抑制에서 오는 逆効果로 失職과 低賃金を 甘受하지 않으면 안되는 處地에 놓이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New Deal 政策은 經濟上의 革命이 아니었기 때문에 不況에서 再起하려는 農民들은 地主 爲主 政治의 犠牲物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 結果로 疲弊된 南部의 農村은 北部의 機械産業의 支配를 받게 되고 農地는 그들 資本家에게 獨占되어 버려 細農民들은 보따리를 싸 지고 故郷을 등지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1930年代의 이 가난한 農民들의 移動은 富를 찾아 헤메는 移動이 아니었고, 經濟的 壓迫에 의한 強制的 追放이었던 것이다.

이런 追放된 貧農들이 彷徨하는 悲慘狀과 거기서 빚어지는 人間的 悲劇에 焦點을 맞춘 것이 *The Grapes of Wrath* 였기 때문에, 앞서서도 말한바와 같이 이 作品은 文學的 側面보다 오히려 Steinbeck 이 이 作品에서 指摘한 狀況이 事實이나 아니냐, 또 事實이라면 聯邦政府와 州政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의 政治的 혹은 人道的 側面에서 論爭의 불씨가 되었던 것이다.<sup>③</sup>

그 實例로 이 作品이 나온지 2個月이 채 못되어, Marshal V. Hartranft 가 “*Grapes of Gladness: California’s Refreshing and Inspiring Answer to John Steinbeck’s Grapes of Wrath*” 라는 긴 제목의 책을 내어 Steinbeck 이 指摘한 것들은 事實이 아니라고 主張했고, George Thomas Milon 은 이 作品을 가리켜,

“a novel wherein naturalism has gone berserk, where truth has run amuck drunken upon prejudice and exaggeration, where matters economic have been hurled beyond the pale of rational and realistic thinking.”<sup>④</sup>이라고 마치 미친 사람 다루듯이 한 후 계속하여,

“...can think of no other novel which advances the idea of class war and promotes hatred of class against class... more than does *The Grapes of Wrath*.”<sup>⑤</sup>

라고 非難하므로써 드디어는 作者를 <빨갱이>로 모라세웠다. 일이 이렇게 되자 Spellman 大主教도 모든 Hearst 系 新聞에 非難의 글을 실게 되었으며, 이 作品의 主人公의 出身地인 Oklahoma 의 州議會에서는 우리 州民을 이렇게 賤하게 取扱할 수 있느냐고 노발대발 하였고 심지어는 이 作品의 映畫化를 反對하는 激烈한 運動에 나서기도 했다.<sup>⑥</sup>

한편 美全國에 걸친 社會學 教授, 新教 牧師들 그리고 行政府 要路에서는 Steinbeck 의 指摘

註 ② F.L. Allen: *The Big Change*, Chapt. 12~13.

③ Warren French: *John Steinbeck*, p. 95.

④ George T. Milon: *The Truth about John Steinbeck and the Migrants*, p. 5.

⑤ *Ibid.*, p. 7.

⑥ Martin Staples Shockly: *The Reception of The Grapes of Wrath in Oklahoma*, p. 357.

事項이 事實이라고 確認했고,<sup>⑦</sup> 有名한 文學評論家인 Stanley Edgar Hyman 은,

“Actually, as a careful reading makes clear, the central message of *The Grapes of Wrath* is an appeal to the owning class to behave, to become enlightened, rather than to the working class to change its own conditions.”<sup>⑧</sup>

라고 文學家 側에서의 一種의 有權解釋을 내림으로써 Steinbeck 을 辯護하고 나섰다.

이처럼 美國 各階 各層에서 贊反의 直刻的 反應을 낳고, 또 Mitchell 女史의 *Gone with the Wind* 以上으로 販賣部數를 올렸다<sup>⑨</sup>는 이 作品을 Steinbeck 은 果然 어떤 思想을 가지고 또한 어떤 目的意識을 지니고 執筆했느냐? 다시 말해, 이 作家가 어느 程度의 社會意識을 갖고 이 作品의 主題인 農民問題를 다루려 했는지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그 것이 이 小論의 焦點이기도 하다.

여기서 問題가 된 이 小說의 줄거리를 잠깐 살펴 본다면, *The Grapes of Wrath*는 30章으로 된 作品이다. 暎수의 章에서는 다음 章을 위한 象徵的 敘述으로써 무척 詩的인 性格을 띠고 있다. 작수의 章은 앞 章에 나오는 象徵的 表現을 받아서 事實을 投入하고 寫實的 筆致로 實際的 事件을 展開시키고 있다. 또 이 30章을 크게 둘로 나누면, 前半의 18章까지는 Oklahoma 의 旱害를 描寫하는데서부터 시작하여, 機械文明의 侵入에 따라온 銀行, 土地會社의 橫暴를, 地主와 小作人의 對話形式으로 說明해 나오다가 드디어 Oklahoma 州에서 쫓겨난 小作人들이 66號 國道를 따라 단 한장의 求人廣告를 받고 「꼴과 짓이 흐른다」고 하는 California 로 移動하는 樣相을 그리고 있으며, 後半의 19章부터는 集團意識이 없었던 이 避難民들이 豊饒한 땅을 찾아왔으나 제대로 人取扱을 받지 못하고 “浮浪者, 侵入者, 事故分子로, 심지어는 때려죽일 <빨갱이>”<sup>⑩</sup>로 불리며 一定한 職業도 없이, 이따금 얻는 일은 賃金引下로 그날 그날의 밥벌이도 안되는 悲慘한 生活 속에서 漸次로 社會意識에 눈을 떠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런 勞動者들의 意識成長 過程을 더듬으면서, 거기서 派生되는 事實 즉 人間의 品位가 철저히 無視當하고 심지어는 存在價值조차 認定 받지 못하는 人間의 忿怒를 한데 묶어 美國 社會에 爆彈처럼 내어 던지고 있는 것이다.

勿論, 1930年代 中間이라면 Steinbeck 이 아니더라도 실건 좋건 農民問題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던 時期이긴 했다. 그러나 이 作家가 그 前에는 農民問題에 아무런 關心의 表明이 없다가 비로소 이 時期에 와서 갑작스럽게 農民問題에 熱을 올린 것은 決코 아니고, 그 前부

註 ⑦ *Ibid.*, pp. 351~61.

⑧ Stanley E Hyman: *Some Notes on John Steinbeck*, *Antioch Review*, 2 (Summer, 1942), p. 195.

⑨ Peter Lisca: *The Wide World of John Steinbeck*, p. 151.

⑩ Warren French: *John Steinbeck*, p. 99.

터도, 즉 30年代 初期부터 Steinbeck 은 이 問題에 關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지나치게 번덕을 부리지 않는 作家라면 當然한 것으로 생각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의 關心도가 자라는 過程을 미리 헤아려 봐야할 必要性이 提起된다.

Steinbeck 의 여러 作品 속에서 그가 勞動問題에 關心을 가지게 된 줄거리를 더듬자면, 우선 우리는 그가 1934년에 쓴 短篇, *The Raid*에 到達하게 된다. 그는 이 作品에서 부터 從來에 볼 수 없었던 共產主義者를 主人公으로 登場시키고 있다. 비록 作品 自體는 未熟한 것이랄 할지라도 共產黨員에 의한 地下工作이라든가 細胞強化 등을 다루어, 이 때부터 갑자기 現實問題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 勿論, 바로 이 時期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國民들이 가장 社會問題에 關心을 가질 때이기도 했다. 즉 그것은 Roosevelt大統領이 百日議會를 召集하여 恐慌 解決에 나섰던 時期인 만큼, Steinbeck 도 當時의 勞動情勢와 聯邦政府의 活動이란 兩面의 刺激을 받았을 것이 틀림 없고, 또 지금까지와는 달리 새로운 分野에 눈을 대려 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 *The Raid*에 있어서의 作家의 姿勢는 分明치 못하다. 라기보다는 勞資問題, 나아가서는 共產主義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作家의 思想이 익지 못한 때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作品에서의 主人公들이 右翼團體의 襲擊을 받고, 또 警察에 잡혀 拷問을 당하여도 變節할 氣味를 보이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作家 自身の 態度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또한 讀者들에게 그런 생각을 갖게하는 要素도 이 作品엔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것은 文學에 從事하는 사람이라면 無心할 수 없었던 當時의 社會情勢에 대한 하나의 反映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無難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이 作品까지에는 아직도 作者의 獨自의 모습이 投影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1935年作인 *White Quail*을 거쳐 *The Breakfast* (發表年度未詳)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Steinbeck 의 참 모습에 부닥치게 된다. 그것은 아주 짧은 感想文 비슷한 것이지만, 勞動問題에 대한 作者의 基本態度가 이 몇 페이지밖에 안되는 作品에 鮮明히 나타나 있다. 즉 그에게 있어서의 勞動問題란 바로 自己가 잘 알고 있는 農民問題라는 것, 따라서 勞動問題에 대한 그의 關心이 極히 日常的 衣食住의 欲求로부터 出發하였다는 點 등이다. 어떤 經濟理論이나 政治的 背景을 갖고 있지 않은 貧農出身인 Steinbeck 이 그의 社會意識을 이처럼 身邊에 가까운 問題에 着根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은 極히 自然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고, 또 이 가깝고 익숙된 領域을 깊이 파고 들어감으로써 後日의 大作을 낳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아침 밥」을 얻어 먹는 <나>라는 人物이, 맑은 아침 空氣 속에서 일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상쾌한 맛을 음미하고 있는 것과 같이, Steinbeck 의 社會意識은 健康한 農民을 對象으로 했을 때 비로소 清新한 香氣를 풍기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또 1936년에 쓴 *In Dubious Battle*을 들추어야 할 必要를 느낀다. 이 作品은 *The Grapes of Wrath*에 대한 序曲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 作品 속에서의 作家의 姿勢는 *The Grapes of Wrath*에서와는 全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는 이 싸움을 題名이 말해주는대로 勝敗를 가늠할 수 없는 싸움으로 만들고 自己自身은 傍觀者의 位置에서 붓을 놀리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作品에는 問題 提起만이 있을뿐 讀者의 마음을 휘잡아 흔드는 內容이 없다. 때문에 이 傍觀者의 態度가 이 作品을 無味乾燥하고 索漠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The Grapes of Wrath*와 이 作品과를 比較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가장 커다란 差異는 이 傍觀者의 立場, 즉 作家가 여기서는 問題만을 提起시켰을 뿐 問題 解決에는 臨하지 않고, 팔짱을 끼고 있는 點이다. 더구나 하나의 主義를 信奉하는 人物을 첫머리부터 登場시켜 所謂「돼지같은 資本主義者」들과 싸움을 시켜 나가면서도 한 쪽에서는 罷業에 대한 不信과 虛無를 갖드렸다는 점, 非情의 世界를 取扱하면서도 主人公 Mac과 Jim의, 또한 Jim과 그의 어머니 사이의 人情과 사랑의 交換에 重點을 두어 感傷化 시켰다는 點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革命이라는 過激한 말들이 자주 튀어 나오고 殺人이 계속되고, Jim이 銃에 맞아 죽는 등의 場面이 있으면서도 結局 그것은 어떤 主義에 대한 體面일 뿐, 그런 極端까지 가지 않으면 안되었던, 다시 말해 回避할 수 없었던 人間感情의 成長이나 그 發露는 볼 수 없다. 이것은 分明히 눈앞에 있는 社會問題에 대한 主體의 不在에 原因이 있는 것이지만, 同時에 Steinbeck이 어느 主義에 의한 統一이라든가 또 어떤 主義에 의한 集團行動 등에 매우 懷疑的이었거나 나아가서는 否定的이었기 때문에 中心人物을 살리지 못한데도 역시 原因이 있는 것이다.<sup>12)</sup>

이렇게 따지고 보면 *The Grapes of Wrath* 以前の Steinbeck에 있어서는 果然 어디까지 農民問題를 생각하려 했는지가 疑心스러울 수 밖에 없다. 거듭 말해, 勞動問題, 특히 그에게 있어서 가장 身邊에 가까운 農民問題는 그 時代에 눈을 돌릴 수 없는 問題이긴 했다. 그러나 그것을 단지 作品의 材料로 選擇했다고 해서 作家로서 滿足할 수 있었는지는 역시 疑心이 가게 된다. 그가 비록 唯物史觀을 消化하지 못했다 치더라도 自己대로의 問題로서 農民問題를 받아들일 수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깊은 原因은 어렸을 때부터 그의 마음 속에 뿌리 깊이 박혔던 思想, 즉 生命을 肯定하고, 生命을 發揚시키는 것이 生命을 지닌 者의 義務라고 하는 思想<sup>13)</sup>이 그로 하여금 主義 如何를 막론하고 土地를 빼앗기고 追放 當하여 일거리도 없이 流浪하며 굶어 시들어가는

註 12) *Ibid.*, p. 53.

13) John Steinbeck: *East of Eden*, pp. 413~415.

農民들의 狀態를 坐視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그가 그럴 수 있었다면 그것은 自己 마음 속에 흔들림 없이 흐르고 있는 生命의 讚歌를 根本적으로 否定하는 것이고 또한 拋棄한 것이 되며, 나아가서는 自己自身の 破滅을 意味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Steinbeck 은 *The Grapes of Wrath*에 와서 그의 態度에 一大 轉換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sup>⑭</sup>

Steinbeck 은 *The Grapes of Wrath*를 完成한 後 너무 지친 나머지 몇 週동안이나 病床에 있었고, 醫師로부터 絶對安靜을 命令 받았다고 한다.<sup>⑮</sup> 그는 이 作品을 쓰기 위해 1936年 9月부터 直接 材料 蒐集에 나서, Salinas 나 Bakersfield 等地의 流浪民 天幕을 찾아 起居를 같이 하며 問題의 深刻性을 몸소 體驗했던 것이다.<sup>⑯</sup> 그는 친구인 Lawrence Clark Powell에게 편지를 보내 이 때의 狀況을 다음과 같이 알리고 있다.

“I have to write this sitting in a ditch. I'm out working—may go south to pick a little cotten. Migrants are going south now and I'll probably go along.”<sup>⑰</sup>

뿐만 아니라 *The San Francisco News*에, 作品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激烈한 語調로 글을 실어 自己가 이들 流浪民에게 어떤 생각과 態度를 지니고 있는가를 미리 發表하기도 했다.

이와같이 直接 蒐集한 材料를 가지고 心血을 기울여 *The Grapes of Wrath*와 對決했던 것이다. 또한 그가 이 農民問題를 얼마나 銳利하게 觀察하고, 얼마나 眞摯하게 理解하려 했으며, 또 얼마나 깊은 同情心을 가졌었느냐 하는 것은 몇가지 逸話에서 역시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Of Mice and Men*(1936)을 Hollywood와 契約하는 데서 생기는 6,000弗을 이 流浪民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sup>⑱</sup> 이 作品을 쓰고 있던 1938年 初에 出版業者 Pascal Covici에게 自己가 본 慘狀을 알리는 서한에서,

“I must go over into the interior valleys. There are five thousand families starving to death over there, not just hungry, but actually starving... In one tent there are twenty people quaranted for smallpox and two of the women are to have babies in that tent this week..... Talk about Spanish children. The death of children by starvation in our valley is simply staggering..... I'll do what I can..... Funny how mean and how little books become in the face of such tragedies”<sup>⑲</sup>

註 ⑭ Peter Lisca: *The Wide World of John Steinbeck*, p. 146.

⑮ *Ibid.*, p. 147.

⑯ *Ibid.*, p. 144.

⑰ Lawrence C. Powell: “*Toward a Biography of John Steinbeck*,” *Celophon* 3 (Autumn, 1938) pp. 562~563.

⑱ Peter Lisca: *The Wide World of John Steinbeck*, p. 146.

⑲ Lewis Gannett, “*Introduction*,” *The Portable Steinbeck*, pp. XX~XXI.

라고 慨嘆했다. 그後 *Life* 誌가 寫眞師를 보내며 이들에 關한 投稿에 많은 돈을 提供하자, 그는 實費 以上을 拒絶하고,

“I’m sorry but I simply can’t make money on these people.....The suffering is too great for me to cash in on it.”

이라고 回答하므로써 앞서도 말한바와 같이 *In Dubious Battle*에서의 傍觀的 態度를 바꾸었던 것이다.

즉 그것은 그가 이 作品을 쓰는데 있어서는 *In Dubious Battle*에서 가졌던 曖昧하고 安易했던 姿勢를 一切 벗어 버리고 어떤 主義나 一般論의 立場에서가 아니라 *The Breakfast*에서 提起했던 問題를 깊이 파고 들어가고 넓히는데 모든 精熱과 精力을 불살랐던 것이다.

*The Grapes of Wrath*에 있어서의 Steinbeck 의 主張은 傳導師였던 Casy 와, Joad 家의 長男인 Tom, 그리고 그의 어머니 Ma 등 세 人物을 通하여 아낌 없이 表明되어 있다. Casy는 마치 豫言者 처럼 말한다.

‘I figgered about the Holy Sperit and the Jesus road. I figgered: “Why do we got to hang it on God or Jesus? Maybe,” I figgered, “maybe it’s all men an’ all women we love; maybe that’s the Holy Sperit—the human sperit—the whole shebang. Maybe all men got one big soul ever’body’s a part of.” Now I sat there thinkin’ it, an’ all of a suddent—knew it. I know it so deep down that it was true, and I still know it.’ (4章)

神이란, 또는 예수란 宗教에서 말하는 神이나 예수가 아니고 모든 人間 속에 깃들여 있으면서 사랑을 求하는 마음이며, 또 聖靈이란 사랑으로 結合된 人間精神의 代名詞라고 그는 믿었고, 또 그러한 눈을 가지고 Joad 家와 行動을 같이 했던 Casy 는 人間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은 惡魔보다도 더 凶惡한 惡魔가 世上을 支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때려 부수는 것이 人間을 救하고 社會를 正道로 돌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人間을 救하고 社會를 正常으로 돌리는 手段으로써 Steinbeck 이 寫를 생각했는가는 罷業을 指導하다 警官에 맞아 죽는 Casy 를 通하여 역시 一層 더 分明해진다. Casy 는 16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Jail-house is a kinda funny place’, he said. ‘Here’s me, been a-goin’ into the wilderness like Jesus to try find out somepin’. Almost got her sometimes, too. But it’s in the jail-house I really got her.’ .....

‘Some a them fellas in the tank was drunks, but mostly they was there ’cause they stole stuff; an’ mostly it was stuff they needed an’ couldn’ get no other way’.....

‘Well, they was nice fellas, ya see. What made ’em bad was they needed stuff. An’ I begin

to see, then. It's need that makes all the trouble'.....

'We struck. This here's a strike'..... ".....the on'y thing you got to look at is that ever'time they's a little step fo'ward, she may slip back a little, but she never slips clear back. You can prove that." he says, "an' that makes the whole thing right. An' that means they wasn't no waste even if it seemed like they was."

이처럼 Casy는 모든 것을 剝奪 當한 者들의 豫言者이며 밤하늘을 물들이던 流星과 같은 사람이었다. 또한 作品 構成으로 보자면 Tom을 創造하기 위한 伏線이기도 하다.<sup>20</sup>

Steinbeck이 사랑하는 人間像은 Tom 속에 完全히 表現되어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作品의 처음부터 不屈의 精神과, 여러가지 問題를 正面으로 解決해 가는 能力있는 青年, Tom은 한때 過失로 사람을 죽이고 지금은 保釋으로 풀려나온 몸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수차례 걸친 간곡한 만류와, 또 어머니와 家族을 생각하여 自己를 自制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社會意識의 方向은 일찌기 이 19章에 나오는 말, 즉 「복숭아 따기를 모두가 일제히 그만두면 賃금이 오를 것이 아니냐」라는 등으로 헤아릴 수 있다. 그가 母親과의 愛情의 굴레를 벗어나, 當面한 社會問題中에서 自己가 가야할 길을 發見하고 그 길로 邁進할 생각이 든 것은 作品의 마지막에 가까운 28章에서 부터이다.

Casy보다도 앞서 事態를 꿰뚫어 보면서도 오랫동안 抑制를 繼續해 온 Tom은 Casy와 다시 만나 對話를 나누던 중에 地主側의 襲撃을 받아 Casy가 맞아 죽는 것을 봤고, 그 때린 者를 죽이고 自己도 重傷을 입게 된다. 이 28章에는 숲 속에 숨어있는 아들과 그 아들에게 飲食을 나르는 어머니 사이의 끝 없는 愛情交換이 感傷을 뺀 壓縮된 筆致로 멋지게 描寫되어 있다. 거기에 있는 것은 離別 뒤에 오는 不安, 그리고 걸음으로 나타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깊은 슬픔, 또 그 슬픔을 밀어제끼고 솟아 올라오는 Tom의 忿怒라고 해야할 것이다. 이 때 Tom은 어머니에게 團結의 必要를 거듭 強調하고, 國營 캠프에 있을 때의 自治生活를 찬양하고, 한쪽에서는 百萬 에이커 이상을 가진 地主가 있고 또 그 땅들이 묵어 썩어가고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善良한 農民들이 飢餓에 허덕이는 不合理를 非難하고 Casy의 뒤를 따르겠다고 斷言하고 있다.

'Then I'll be aroun' in the dark. I'll be ever'where—wherever you look. Wherever they's a fight so hungry people can eat. I'll be there. Wherever they's a cop beatin' up a guy, I'll be there.....An' when our folks eat the stuff they raise an' live in the house they build—Why, I'll be there.'

Tom의 이 말은 農土와 일을 빼앗기고, 低賃金으로 搾取 當하는 사람들을 指導하여 團結

註<sup>20</sup> Warren French: *John Steinbeck*, pp. 102~103.



로 이끌어 가려는 決心을 굳혔다는 것만을 表示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그 일을 하다가 生命을 잃어도 介意치 않겠다는 深刻하고도 굳은 信念을 吐露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굶주린 사람들이 먹기 위하여 團結하고 自活을 이루게만 된다면 그 때 당신의 아들은 비록 죽음을 當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生活 속에 살아 있다고 생각해 달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sup>21</sup> 그리고 Oklahoma에서 쫓아져 나온 小作農들의 救濟란 問題에 Steinbeck이 준 解答도 이 Casy와 Tom의 이런 말중에 要約되어 있다고 보아 좋을 것이다.

따라서 이 作品에 있는 것은 產業構造의 矛盾에 대한 싸움이며, 가진 者들의 我慾과 偏見에 대한 宣戰布告이며, 나아가서는 政治家들과 聯邦政府의 無策, 無誠意에 대한 正面 攻擊인 것이다. Steinbeck은 이 作品에서 단지 問題 提起에만 머무르지 않고 分明히 小作農의 立場에 서서 產業構造의 缺陷때문에 苦痛을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救하며, 또 어떻게 해서 美國社會를 健全한 方向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벌써 「勝算 없는 싸움」이라고 한 말 물러서서 觀戰하는 立場이 아니고 이 事實을 暴露하여 資本主義의 지나친 殘酷성과 社會政策의 貧困 또는 無能을 小作農의 立場에서 抗辯하고 또 解決을 要求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가 하나의 社會問題에 이처럼 至大한 關心을 表示하고 그 解剖와 救濟策에 깊이 몸을 담근 것은 이 作品이 처음인 것이다. 그러나 그 解決策은 그가 이 作品 속에서 農民의 反亂이나 革命을 豫期할 程度로 過激한 붓을 휘둘렀다고 해서 左翼系列에서 말하는 그런 角度로 解釋할 수 있을 것인지는 매우 疑心스럽다.

問題는 Steinbeck이 果然 社會主義 革命을 머리에 그리고 이 作品을 썼으며, 또 그런 事態까지 이를 수 있는 要素를 *The Grapes of Wrath*가 지니고 있느냐 없느냐인 것이다. 結論부터 말한다면 이에 대한 對答은 아무리 뜯어 보아도 否定的일 수 밖에 없다.<sup>22</sup>

그 理由는, 우선 勞動運動이란 이 當時의 特色이고 이 時代的 霧圍氣가 『분노의 포도』에 反映되었을 뿐 어떤 理念이나 主義를 위한 作品이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 經濟恐慌以後 美國內에 있어서는 勞動者 農民들이 自己들의 權益을 되찾기 위하여 組合을 結成하여 活動하기 시작했으며, 1937年 한해의 勞動爭議數만도 4千 數百件이 넘는다고 報告되었고, 이에 따라 앞에서도 言及한바와 같이 美國政府 自體에서도 對策에 나서 1935年の 社會保障法, 38年の 公正勞動基準法 등을 通過 시키고 모든 힘을 이에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므로 *The Grapes of Wrath*는 무엇 보다는 위와같은 政情의 또 하나의 反映이지 이 作品의 素材만이 特別히 새로웠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때, 『분노의 포도』의 特色은 勞動意識의 高揚이라는 當時의 社會情勢를 反映하

註 21) Peter Lisca: *The Wide World of John Steinbeck*, p. 174.

22) Warren French: *John Steinbeck*, pp. 97~98.

고 있는 것도 事實이긴 하지만 그 點에 重點을 두었다고는 볼 수 없다. 만일 作者가 當時의 勞動情勢를 反映하는 데만 置重하였다면 一部の 主張, 즉 共產主義 宣傳文書로 墮하게 되어 이 作品의 文學的 價値는 喪失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노린 것은 그러한 社會意識이 高調되었던 時代에서 조차 돌보지 않았던 悲慘한 難民들의 人間的 尊嚴性과 人間價値를 높이 올고자 하는 것이었다. ㉓

이 作品이 政治革命으로 까지 번질 수 없는 또 한가지 要素는 Steinbeck 自身 속에 깃들여 있다. 그것은 예를 들어, 背後로 壓迫하는 生活苦에 물리고 大資本主나 地主組合으로 부터의 壓力에 生活의 길이 끊겼을 때 難民들의 가슴에 매친 忿怒를 어떻게 取扱하였느냐 하는 그의 手法에 나타나 있다. 즉 그는 그들의 忿怒를 Casy 의 말처럼 神의 因子를 지닌 人間이 모든 것을 剝奪 당한 속에서 느끼는 素朴한 忿怒로, 혹은 Tom이 말한 것처럼 남김없이 品位가 깃밟힌 者들이 맛보지 않을 수 없는 純粹한 忿怒로 取扱하였지, 唯物史觀에 基礎를 두었거나, 또 特定한 政治體制를 意圖한 不純한 忿怒가 아닌 것이다. 그것은 生을 維持하려는 最後의 線에서 自然的으로 우러나온 소리였기 때문에 한 없이 深刻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느 程度까지의 要求가 充足되면 거기서 끝날 그런 性質의 忿怒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作品속에서 社會主義的 革命 要素를 읽으려 하는 것은 지나친 생각이라 아니할 수 없다. ㉔

勿論, 이 作品에는 過激한 어투도 使用되었으며 生을 지키기 위한 團結을 強調하는 말도 없지 않아 그런 것들 만을 골라 낸다면 혹은 唯物史觀을 바탕으로 한 社會主義 革命을 노렸다고 볼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我田引水格인 主觀的 部分摘出을 할 때 생기는 結論일 뿐 作者의 基調는 될 수 없는 것이다.

만 作品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어서도 Steinbeck 의 key tone 은 어디까지나 個人的인 것이지 어떤 主義에 의한 集團化 내지는 어떤 政治的 教條에 의한 統一化가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目前의 貧困과 壓迫을 물리치기 위하여 團結과 集團化를 우선 의쳤을 뿐 어떤 集團이나 團體가 人間問題를 解決한다고 그는 생각지 않으며, 오히려 그는 어떤 種類의 것이든 集團과 單一化를 極히 싫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人間을, 보다도 個人을 모든 價値基準의 中心이라고 생각하는 그의 人間觀과 이 個人의 靈魂을 좀먹고 抑壓하는 것이 機械化된 現代의 文明과 集團이라고 생각하는 素朴한 人生哲學이 그의 文學의 低邊에 깔려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Steinbeck 은 人間이란 善과 惡의 그물에 걸려 있는 存在라 생각한다.

“Humans are caught—in their lives, in their thoughts, in their hungers, and ambitions, in their avarice and cruelty, and in their kindness and generosity too—in a net of good and

註 ㉓ Ibid., p. 98.

㉔ Maxwell Geismar: *Writers in Crisis*, p. 268.

evil.”.....

“A man, after he has brushed off the dust and chips of life, will have left only the hard, clean question: Was it good or evil? Have I done well—or ill?”<sup>25</sup>

人間이 이런 存在이기 때문에 이 善과 惡의 相剋 속에서 Steinbeck은 人間의 歷史와 現實을 읽으려 하는 것이다. 그가 聖書에서 말하는 「아벨」이나 「노아」와 같은 神이 選擇한 사람들을 外面하고 「카인」의 後孫으로써의 人間을 把握하려는 傾向은 우리들 個人에게서 「카인」과 같은 罪의 要素를 發見한데 그 理由가 있다. 따라서 *The Grapes of Wrath*를 놓고 勞働者農民의 正當性이라든가 資本家들의 不當性 등을 次元 낮게 云謂한다면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Steinbeck은 「카인」이 그 나름대로 神의 保護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善과 惡의 그물에 걸려 허덕이며 헤어날줄 모르는 우리에게도 救援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럼 이 救援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는 神의 慈悲나 選擇에 의해서가 아니라 人間의 自由意志를 行使한 人間의 選擇權으로 救援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Steinbeck은 人間 속에서 그것도 個人 속에서 小宇宙 즉 神을 發見한다. 다시 말해 그는 人間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속에서 否定할 수 없는 神性的 存在을 認定하고 人間이 비록 神이 要求하는 대로 길을 걷지 못하고 있지만, 人間은 神의 要素를 품고 있기 때문에 人間을 各各 倫理의 한 單位를 가진 個體로 看做하고 位置지음으로써 人間에 대한 救援을 發見해 내려고 努力한다. 따라서 難民問題의 解決도 政府의 對策이나 勞資鬭爭에서가 아니라 結局 모든 것이 個人에게로 돌아간다고 그는 믿고 있다.

이렇게 Steinbeck은 人間自體 속에서 救援의 可能性을 認定하고 있기 때문에,

“Maybe you'll come to know that everyman in every generation is refined. Doesn't a craftsman, even in his old age, love his hunger to make a perfect cup—thin, strong, translucent?.....

All impurities burned out and ready for a glorious flux, and for that—more fire. And then either the slag heap or, perhaps what no one in the world ever quite gives up, perfection.”<sup>26</sup>

이라고 主張한다. 즉, 各 世代에 있어서 各 사람이 純化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그것은 時間의 흐름에 따라 不純한 모든 것이 남김없이 타버리고 榮光이 빛나는 흐름으로 차차 向해가고 있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人間에게는 더욱 더한 試練이 加해진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므로 恐慌과 資本家の 橫暴와 難民의 悲慘狀도 美國民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試練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試練을, 人間은 自己가 갖고 있는 選擇權에 따라서 倫理의 한

註 25 John Steinbeck: *East of Eden*, Chapt. 34.

26 *Ibid.*, Chapt. 55.

單位를 擔當한 個人으로써 對處하고 싸워 이기지 않으면 안되고, 또한 人間의 價値가 거기에 있다고 그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사람이란 空氣가 占해야 할 空間을 쓸모 없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人間으로써의 責任이 있다는 것이다.

“You see, there’s a responsibility in being a person. It’s more than just taking up space where air would be”<sup>27</sup>

이렇게 倫理의 한 單位으로써의 自己責任을 自覺할 수 있는 것은 오직 人間에게만 許容된 것이며 이것이 또한 人間을 人間답게 하는 것이라고 Steinbeck 은 믿고 있다. 그래서 그는,

“And it occurs to me that evil must constantly respawn, while good, while virtue, is immortal. Vice has always a new fresh young face, while virtue is venerable as nothing else in the world is”.<sup>28</sup>

라고 말하므로써 惡이 자꾸만 새끼를 쳐서 아무리 世上에서 繁榮을 누리고 또 惡德이 말쑥한 얼굴로 粉裝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一時的인 것이고, 이와는 달리 人間 속에 깃든 善과 德性은 永遠不滅의 것이라고 그는 主張한다.

그러니까 Steinbeck 은 人間의 自由意志에 價値를 주고 또한 人間에게 神性을 賦與하는 것은 단 것이 아니라 人間 속에 간직된 善이요, 美이며, 德性이고, 誠實性이며, 特히 사랑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몇가지 重要的 要素로 人間 그 自體와 人間이 지닌 問題를 解決해야 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人間을 神에게로 가까이 가게 해주고 또 人間에게 永遠한 生命을 주는 것이라고 역시 그는 確言한다.

따라서 人間의 選擇權 行使는 人間을 神으로부터 멀리하는 것도 아니며 또 神이 指示하는 길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라고 그는 믿는다. 오히려 人間이 自己가 지닌 神性, 즉 自由意志와 善과 美와 사랑을 發揚할 때 人間은 榮光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And I guess a man’s importance in the world can be measured by the quality and number of his glories. It is lonely thing but it relates us to the world. It is the mother of all creativeness, and it sets each man separate from all other men.”<sup>29</sup>

이라고 人間의 重要性을 榮光의 質과 數로 測定하려 하기도 했다. 이 榮光을 찾는 길이 괴롭고 외로운 길이라고 認定하지만, 그래도 그 길이 우리로 하여금 이 世上과 關係를 이어주며, 그러면서도 各者를 다르게 해주는 또 모든 創造의 母體가 된다는 確信을 披瀝하고 있다.

그래서 Steinbeck 은, 人間이란 이런 榮光으로 向하는 努力과 生活에서 救援을 받을 수 있다

註 27) *Ibid.*, Chapt. 39.

28) *Ibid.*, Chapt. 34.

29) *Ibid.*, Chapt. 13.

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人間의 混濁과 彷徨으로부터 눈을 뜨고 善한 것의 榮光으로 自己를 引導해 가는데 救援이 있고, 또 그렇게 自己를 이끌어 가는 것이 倫理의 한 單位로서의 個人이 걸머진 先天的 義務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榮光의 길을 걷고 있느냐 아니냐는 個人마다 끊임 없이 自己自身에 대하여 물어보지 않으면 안되는 問題인 同時에 그것 없이는 우리들의 生命의 價値를 無로 돌리게 된다고 그는 믿고 있다. 따라서 Steinbeck이 계속 찬양하는 個人의 價値라는 것은 위와 같은 道德性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The Grapes of Wrath*를 따지는 視角의 位置도 이와 같은 moral 위에 定立되어야 한다. 그것은 걸으려는 神과 아무런 關係가 없는 것같이 보이지만 窮極의으로는 人間을 神 앞에 세우고 神과 人間과의 對話 속에서 人間의 姿勢를 스스로 묻게 하자는 것이다.

“And this I believe: that the free, exploring mind of the individual human is the most valuable thing in the world.”<sup>㉔</sup>

Steinbeck은 이처럼 個人의 무엇인가를 찾아 해매는 마음이 이 世上에서 가장 重要的 것이라 믿었고, 이 彷徨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救援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 滅亡을 當하는 수가 없지 않지만,

“Surely most men are destroyed, but there are others who like pillars of fire guide frightened men through the darkness.”<sup>㉕</sup>

에서 보는바와 같이 겁에 질려 갈길을 모르는 사람들을 어둠에서 引導해낼 Casy, Tom 또는 Ma 등 즉 불기둥같은 사람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個人이 滅亡의 길을 가느냐, 혹은 불기둥이 되느냐는 神이 命命하고 또 指示하는 것이 아니라 각 個人이 自己 속에 품고 있는 倫理의 한 單位로서의 價値를 어느 程度까지 貴重하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믿었고, 따라서 Steinbeck은 最後에 가서는 個人의 靈魂이 그리고 人間 속에 깃든 善이 勝利할 것이라고 樂觀的 信念을 表示하고 있다.

그런데 이 個人의 靈魂, 個人의 善을 다시 말해 善과 惡을 앞에 놓고 한쪽을 取할 수 있는 個人의 自由意志와 選擇權을 짓밟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그것은 大衆文化요, 集團이라고 Steinbeck은 서슴치 않고 대답한다. 우리는 大衆文化에 汚染되어 創造性을 喪失하게 되었으며, 한편 이 時代는 人間을 過度하게 集團으로 統攝 시키므로 人間을 滅亡의 길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榮光에로의 외로운 길, 個人이 홀로 걷는 길만이 創造의 母體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소위 mass와 group이 다 빼앗아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Steinbeck은,

“It is ture that two man can lift a bigger stone than one man. A group can build automobiles

註 ㉔ *Ibid.*, Chapt. 13.

㉕ *Ibid.*, Chapt. 24.

quicker and better than one man. And bread from a huge factory is cheaper and more uniform. When our food and clothing and housing all are born in the complication of mass production, mass method is bound to get into our thinking and eliminate all other thinking. In our time mass or collective production has entered our economics, our politics, and even our religion, so that some nations have substituted the idea collective for the idea of God. This in my time is the danger. There is great tension in the world, tension toward a breaking point, and men are unhappy and confused.”<sup>②</sup>

라고指摘하여 現代의 mass 文明과 集團化를 猛烈히 非難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時代에 사는 人間들은 各己 다음과 같은 疑問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즉,

- ① 나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 ② 나는 무엇을 위하여 싸울 것인가?
- ③ 나는 무엇에 대하여 싸울 것인가?

라는 것인데, 이런 疑惑을 가지는 것은 當然하며 또 自然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萬物 中에서 人間만이 創造性을 지닌 動物이요, 人間만이 創造하는 道具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個人의 精神이요, 또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두 사람 以上에 의하여 創造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는 생각한다. 音樂, 美術, 詩, 數學, 哲學을 莫論하고 合作에 의하여 創造的인 것이 이루어진 例는 極히 드물었고, 언제나 創造라는 奇蹟이 생긴 후에야 비로소 集團이 그것을 擴大, 利用, 普及하였을 뿐이지 集團이란 純粹한 意味에서 決코 무엇을 創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가장 貴重한 것은 個人의 의로운 마음 속에 깃들게 마련이라고 Steinbeck 은 다음과 같이 主張한다.

“At such a time it seems natural and good to me to ask myself these question. What do I believe in? What must I fight for and what must I fight against?

Our species is the only creative species and it has only creative instrument, the individual mind and spirit of man. Nothing was ever created by two men. There are no good collaborations, whether in music, in art, in poetry, in mathematics, in philosophy. Once the miracle of creation has taken place, the group can build and extend it, but the group never invents anything. The preciousness lies in the lonely mind of a man.”<sup>③</sup>

그러나 이 貴重한 個人의 마음에 宣戰布告를 하고 正面으로 挑戰해 들어오는 것은 集團이란 概念이요, 이 概念은 暴力이란 武裝까지 갖추고 덤벼들고 있다. 그리하여 이 集團은 毀損과, 操作된 飢餓와, 抑壓과, 方向의 強要와 꿈쩍달삭 할 수 없는 環境造成 등의 方法으로 自

註 ② *Ibid.*, Chapt. 13.

③ *Ibid.*, Chapt. 13.

由로운 우리의 마음을 뽕뽕 묶어놓고, 그것을 鈍化시키고 또 麻痺시켜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은 슬픈 自滅의 길이라고 그는 亦是 強調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事實을 안 以上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또 무엇에 대하여 싸우지 않으면 안되는가의 解答은 自明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Steinbeck 은 다음과 같이 決意를 表明한다.

”And this I believe: that the exploring mind of the individual human is the most valuable thing in the world. And this I would fight for: the freedom of the mind to take any direction it wishes, undirected. And this I must fight against: any idea, religion, or government which limits or destroy the individual. This is what I am and what I am about.”<sup>99</sup>

이런 主張으로 봐서 *The Grapes of Wrath*에서 表白된 그의 鬪爭 思想과 외침은, 政治나 經濟나 하는 皮相의인 것이 아니라 精神的인 墮落 내지는 腐敗에 대한 鬪爭, 즉 宗教的 次元에서의 싸움을 意味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集團들이 個人的 自由精神을 抹殺하려 드는가라는 疑問에 대하여는 이 個人的 自由精神이 存續하는 限, 그런 集團들이 結局에 가서는 破滅되기 때문이라고 Steinbeck 은 대답한다. 그러니까 宗教 程度가 아니라 神의 座에까지 올라 앉은 이런 集團을 우리는 無條件 憎惡해야 하며, 非創造的인 動物들과 우리를 區分해 주는 오직 한가지인 人間의 精神을 保護하기 위하여 싸우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萬一 에 善의의 榮光을 喪失하면 人間 自體가 喪失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The Grapes of Wrath*에 表示한 社會的 關心은 難民의 苦難과 또한 그들의 싸움을 通하여 資本家들이 惡에서 눈을 뜨고 個人的 生命的 價値를 깨닫게 해주자는데 主眼이 있지, 資本家 들을 打倒하고 그 代身 그 자리에 勞働者 「集團」을 세우자는 것이 아니다. 즉 그는 Okies 라고 불리우고, 國家에서의 救濟는커녕, 自己의 州에서조차 쫓겨나 일거리도 없이 彷徨하는 이 淒慘한 難民들 가운데서도 侵犯할 수 없는 存在價値를 認定하자는 것으로써 人間은 決코 어떤 것이든지 外部의 壓力에 의하여 무참히 짓밟힐 수 없다는 것을 목청이 터지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이 作品이 美國 30年代의 그늘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위한 辯護라고 할 때 그것만으로도 充分한 現實問題를 지니고 있지만, 이 素材가 本質的으로 人間의 誠意를 믿고 또 人間 肯定的 立場에 서 있는 Steinbeck 의 手中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人間生命의 榮光을 感動차게 읊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분노의 포도』를 읽는 사람이라면 그 첫머리에 나오는 거북이가 生의 苦惱를 一身에 걸머지고 新作路를 기어가는 모습을 볼 것이다. 이것은 단지 그 뒤에 展開되는 집 잃은 나그네

註 99 *Ibid.*, Chapt. 13.

들이 西쪽으로 流浪하는 것을 뜻한다는 程度의 單純한 것이 아니며, 보다더 本質的인 生命의 執着力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㉔</sup> 또한 마지막에 가서, 苦難 끝에 드리닥친 洪水를 피하여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하고 山속으로 피난하는 Joad 家의 小女 Ruthie 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속에서도 한송이의 꽃에 魅了되는 場面과 또 流産을 한 만딸 Rose of Sharon 이 餓死 直前의 中年 사나이에게 젖을 빨리는 情景을 볼 수 있다. 이 場面을 가리켜 社會意識으로 부터의 逃避이며 또는 「카다르시스」라고 批判하는 사람도 없지 않고, 또한 作家가 어린 時節부터 사귀어 온 生物學者인 Ricketts 영감한테 받은 影響으로 非目的論의 禍를 입어 그가 한 쪽에만 편을 들 수 없었다고 非難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것은 皮相的 觀察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마지막 場面은 이 作品의 압권이라 해야 옳을 것이다.<sup>㉕</sup> 왜냐하면 그것은 Steinbeck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 박은 要素, 즉 生命의 讚歌를 높이 부른 場面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逃避의 노래가 아니고 創造를 胚胎하는 노래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는 Joad 家의 Ma 에게서나 *To a God Unknown*(1933)의 Lama 에서, 男子를 内部 崩壞로부터 再生시켜, 人間을 地上에 있어서 永遠한 存在로 자리를 잡게하는 生命의 奔流를 찾아볼 수 있지만, 이 生命의 奔流를 讚揚하는 것이 Steinbeck의 本願인 것이다. 그는 이 『분노의 포도』에 있어서 流浪民들을 사랑스러운 사람들이라거나 道德的인 存在들이라고 하지는 않았다.<sup>㉖</sup> 그러나 이들의 生命의 奔流가 社會惡 때문에 窮地에 몰렸을 때 이들이 어떤 反應을 나타내는가를 主題로 하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Tom 의 Ma 는 말한다.

'Why, Tom——us people will go on livin' when all them people is gone. Why, Tom, we're the people that live. They ain't gonna wipe us out. Why we're the people——We go on.'  
(20章)

'We take a beatin' all the time.'

'I know.' Ma chuckled. 'Maybe that makes tough. Rich fellas come up an' they die, an' their kids ain't no good, an' they die out. But, Tom, we keep a-comin'. Don't you fret none, Tom. A different time's comin.' (20章)

'Man, he lives in jerks——baby born an' a man dies, an' that's a jerk——gets a farm an' loses his farm, an' that's a jerk. Woman, it's all one flow, like a stream, little eddies, little

註 ㉔ Peter Lisca: *The Wide World of John Steinbeck*. pp. 158~159.

㉕ *Ibid.*, p. 177.

㉖ Warren French: *John Steinbeck*, p. 99.



waterfalls, but the river, it goes right on. Woman looks at it like that. We ain't gonna die out. People is goin' on—changin' a little, maybe, but goin' right on.' (28章)

여기에 Steinbeck 이 提示한 解答이 있다. 그것은 작게 잡아 所謂 Okies 의 回復力에 대한 希望이고, 크게 잡으면 人間의 生命力的 勝利인 것이다. 왜냐하면 Ma 의 姿勢에는 未來와 連結되는 意味에 있어서의 現在의 把握이 있고, 社會的 解決의 可能 如否는 疑心스러우나 여하튼 Joad 家가 살아 남아 드디어는 봄을 맞이하게 될 것이 아니냐라는 希望을 희미하게나마 가지게 하기 때문이다.

앞서도 말한바와 같이 Steinbeck 에 있어서의 社會惡이란 生命과 自由意志에 대한 抑壓이고 또한 이들을 危機에 몰아넣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過去 「인디언」을 몰아냈던 白人들 以上으로 이번에는 白人들을 몰아내는 資本家들의 橫暴나 大企業의 暴威에 대한 抵抗이나 忿怒도 위와같은 觀點에서 解釋되어야 하며, 거기에 Steinbeck 의 社會意識의 根源과 限界性이 있는 것이다.

#### 參 考 文 獻

1. Tedlock, E.W., Jr., and Vicker, C.V., ed. Steinbeck and His Critics: A Record of Twenty-Five Years. Albuquerque: Univ. of New Mexico Press, 1957.
2. Lisca, Peter. The Wide World of John Steinbeck. New Brunswick: Rutgers Univ. Press, 1958
3. French, Warren. John Steinbeck. New York; Twayne, 1961.
4. Fontenrose, Joseph. John Steinbeck. New York; Barnes & Noble, 1963.
5. Watt, F.W. Steinbeck. London; Oliver and Boyd, 1967.
6. Geismar, Maxwell. Writers in Crisis. New York; Hill and Wang, 1961.
7. Litz, A. Walton. Modern American Fiction.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63.
8. Kazin, Alfred. On Native Grounds.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 1942.